

김장호

- 1941년 일본 히로시마 출생
- 1945년 귀국, 경남 통영군 사랑도에서 자람
- 1958년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 몰래 일본으로 밀항
- 독학으로 일본어 습득
- 1972년 다른 재일교포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북한 방문
- 1982년 실내 인테리어 가게 운영 중 한국인 부인과 결혼
- 12월 10일 입국. 김포공항에서 안기부로 연행
- 51일간 안기부 조사 끝에 '간첩'으로 조작, 무기징역 선고
- 1998년 8월 가석방 출소(16년 복역)
- 현재까지 평택에서 일본어 교습으로 생활

나는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
내 발자취의 흔적마저도 지우고 싶었다



사람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.

국가로부터 받은 수모와 모욕,
간첩으로 덧씌워진 데 대한 불신이 내재한 것이다.

나름대로 편안했다.

누구 만날 일도, 어디 갈 곳도 없으니
욕먹을 일도, 욕할 일도 일어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.



그런데 난데없이
고요한 호수에
돌멩이가 던져진 것이다

진실의 힘이라는...

돌멩이



진실의힘 모임마다 참석하면서
사람과의 대화가 더욱 더 즐거워지고,
스스로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게 되었다.

모욕적이고 치욕스러웠던 과거가 괴롭고,
무지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워서
남 대하기가 부끄러워 대인기피증이었던 나를
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.

사람과의 만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.





누지 시대의 전통 음식인 갈비와 Bulgog, Kimchi, Yongchum, Guk의 영예 >

나는 알게 되었다.

내 마음이라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
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
남과의 대화 속에서 올바른 내 마음을
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

즉, 내 마음은
남에게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“
가장 큰
후유증은
인생의 맥이
끊긴 거예요
”



- 고문치유모임 5기 -

- 고문치유모임 5기 졸업식 -



“이제, 좀…홀가분해요”

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
치유모임에 나가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.

나같이 늙은 영감 하나라도
그들 곁에 함께 앉아 있으면,

‘저런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…’
용기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.



2011.10.30. <심리치유센터 와락> 개소식



2012.5.3. <쌍용차노동자 대한문분향소>

진실의힘 치유학교

상처입은 치유자

김장호



“우리가 치유 한다는 것은,
선생으로서가 아닙니다.

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
마음이 중요한 것이지.
학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,
어루만져 주는 거예요.”

“치유는
일방적이 아니라 상호 작용 한다는 것.
즉,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.

내 진심이 남에게 전달될 때
그로 인해 내가 또 다른 자가
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다.”

“그냥 배고픈 사람 밥 해 먹이고,
빨래 필요한 사람 빨래 해주고,
그냥 그 사람과 생활을 하면서
어루만져 주는 거예요.

내가 도와 주려 하는 것도 아니고,
뭔가 들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,
편안한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
중요하다고 봐요.”

나는 고문, 감옥살이, 사회적 차별과 낙인 등
죽음 같은 고통을 견뎌낸 고문생존자입니다.

이제 나는

상처에서 돌아난 내 삶을

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

피해자들과 나누며

‘상처입은 치유자’로 살아가겠습니다.

